

## 제 2 장

# 교회와 국가 II

### 1. 정치적인 통치자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교회의 주교들이 황제에게 이처럼 “대사제인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인사한 것은 황제를 교회의 최고지배자로 생각한 증거라고 후세의 타 그리스도교 종파 역사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인사를 황제에게 한 참되 이유는, 황제를 교회의 최고지배자로서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임원으로서 황제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으며, 나지안지스의 그레고리오스 성인(329-390)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여러분들은(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주교들) 역시 통치하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여러분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지안지스의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제국의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통치자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들로서 주교의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말하였다. 나지안지스의 그레고리오스 성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비단 동방교회에서만 믿는 가르침이 아니라 서방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졌었다. 그 예로 밀라노의 암브로시오스 주교는 황제 테오도시오스 1세가 사제들만 머물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여 그 곳에 황제가 앉도록 하였다. 교황 겔라시오스 1세도, “황제는 교회의 자녀이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황제는 정치적인 통치자이지 교회의 우두머리는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구나 이시리오스 필루시오티스(360~440)가, “옛날에는 왕국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교회가 이를 시정하여 벌을 주었다.”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낮은 계급의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잘못 뿐만 아니라 황제의 도덕적인 잘못까지도 문책할 권한이 주교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 아타나시오스 성인(295~373)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군 리비아의 한 통치자를 (이름은 밝혀지지 않음) 파문하였으며, 대 바실리오스는 아타나시오스 성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한 통치자는 파문당해 마땅하며,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 물과 불을 주어서도 안되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된다고 썼다. 시네시오스 프톨레마이도스 주교(370~415)도 같은 이유로 펜다 폴리스의 통치자인 안드로니코스를 파문하였다.

코르두이스 성인(256~358)은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교회를 자신의 권한 하에 종속시키려 하자 이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우리가 세속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왕께서도 교회를 지배하실 수도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테오도시오스 1세가 390년 칙

령을 내려 데살로니카의 양민 7천명을 집단학살하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스(340~397)는 이 막강한 황제에게 교회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라고 설득하였다.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풀리에브코스(956~970) 총대주교도 요한 치미스키 황제에 대해 (963~969) 이와 비슷한 분책을 행하였다. 치미스키는 왕비 테오파노의 도움을 받아 전 왕 니키포로스 2세를 암살하고 왕이 되려고 하였으나 풀리에브코스 총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들을 치미스키가 수락하여야 대관식을 기행하겠다고 대답하였다.

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 ② 테오파노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낼 것 ③ 황제의 암살에 참여한 공범자들을 엄벌할 것 ④ 교회의 모든 문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전 왕이 제정한 법을 무효화할 것 등, 치미스키가 이 조건들을 수락하여 이를 시행하고 난 후에 총대주교는 대관식을 기행하였다.